

◇동남아 화교사회의 역사적 형성과 변천

세계 경제 불락화의 복병

오 일 환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중국 역사상 '당인(唐人)', '북인(北人)' 등 해외로 이주한 중국인을 뜻하던 화교는 19세기 말부터 '중국인', '중화인', '민월인', '화인(華民)', '화공(華工)', '화상(華商)'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신생국가의 탄생과 국제문제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화인(唐人)', '화족(華族)', '화에(華僑)' 등의 명칭으로 변화하였다. '화교'란 중국의 외교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해외 거주자의 중국 국적을 가진 자, '화인'은 중국 국적이 없는 자국국민을 가진 자, '화족'이란 국적이 없는 한민족과 구별되는 중국인 모두를 칭하며, '화에'는 중국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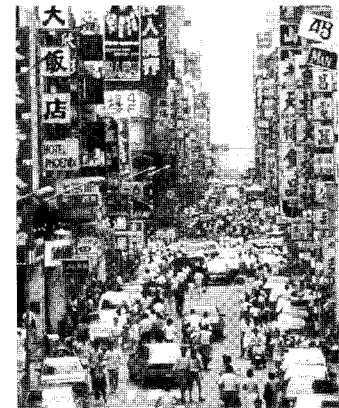
동남아 거주 중국인 약 3~4천만명의 중국인이 그들의 전통과 습속을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다.

송대에 화교형성

역사적으로 중국인은 7세기 당나라 왕조의 신 이후 동남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작하여 불교를 전파한 지역은 물론 무역항을 형성하였다. 당은 대외무역과 함께 사절에서 중국 역사상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당조의 장래문화, 경제, 문화적 영향이 동남아시아에 미치게 되어 국제적인 위상이 증가되었다. 이때 화교들을 '당인(唐人)'이라 불렀으며 자신들의 거주지도 '당인가(唐人街)'라 하였다.

그러나 화교 사회가 구체적인 구역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송대부터이다. 이 때 원인으로 문화, 남송이래 경제 중심이 북방에서 남방으로 이동하였고 봉건 사회경제의 급속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남방 광동, 북경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연해지역의 토지개방도 진행되었다. 경제, 도시사업의 붐과 경제 번성의 확대, 농수산물의 증대, 대량의 양식 작물 이외에 면, 마, 차, 과일 등의 경제작물이 재배되고, 수공업과 제철기술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상품화폐의 유통과 함께 상업이 융성하였으며 해외 해외무역의 시작부터는 국가 제원의 하나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세계는 계급구조의 변화를 등 수 있었다. 봉건제도의 지위하락과 사대부의 몰락, 농민과 천민의 지위 향상, 도시의 형성과 유통에 따른 상인의 활약, 고을 노동계 등으로 변화하였다.

빛에는 천문학의 이용과 조선, 항해 기술의 진보로 해상교류가 비교적 당대보다 더욱 발전하였다. 그리고 송대 학술의 발전과 화약, 화포, 지남침의 발명으로 12세기에 화교들은 이미 나침침을 활용하게 되었다. 원대에 이르러 당송시대보다 발달한 대외무역과 해상교류로 인도양의 해상로를 중국인이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명초 27년간에 걸친 정화의 행에는 30여개국과 14개가 동남아 지역이었으며 중국과 동남아 지역간의 해상교류와 동남아 항로를 보호할 필요로 화교들의 경영활동에 유리한 위치를 얻어 놓았다. 원말의 난이 자자, 팔리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지방에 분포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중간에서 중국인들이 대량으로 새로운 거주지인 '신촌(新村)'을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현지민과의 절교와 결혼으로 그들과 융화



이들은 본고 사학과 역사과정을 밟고 현재 중국 선진 경제발전과 역사에서 연수 중인 오일환(왼쪽)은 본고에서 만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동남아시아 경제의 중심은 주지대로 명칭으로 화교사회와 화교의 역사적 형성과 변천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왼쪽)

현지 국적 취득으로 화인 증가
가속화되는 동양경제중심화

한기 시작하였다. 특히 16세기 중엽이후 명 중기부터 이반정 전까지의 동남아의 화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활동영역이 확대되었다. 이는 명, 월 지역의 농민과 수공업자들의 출항, '자본주의 명'의 출현, 명정교체기의 경제적 혼란으로 부대의 탈출 등으로 점점 동남아시아의 교역과 이주가 증대되었다. 또한 16세기 이후 서구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으로 동양의 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점차 상인, 정치인, 장사 이외에도 화상(華工)의 출항이 증대되었다.

전정후 탈출이 계기

이반정 전후 중국은 서양 식민지주의 침입으로 '분할정적'의 파괴, 파산한 농민과 수공업자들이 빈곤으로부리의 탈출하기 위한 출항이 대부반되었다. 그리고 지방의 식민지 자본은 동남아 각지의 식민지 자본

한 '무리(무리)'인 '부족(부족)'이다. 청조말기에 이르러서 동남아 지역의 화교들은 손문의 민주혁명운동에 '화교는 혁명의 어머니'로서 대대적인 공헌을 하였다. 홍콩, 동맹의 동시 성립으로 동남아 지역은 특히 성립의 분화가 100여개 이상의 정치단위로 분단구지지 형성되었고 혁명활동의 주요 기지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차례 발생한 기의와 신해혁명 등의 기의해결에 따라 점차 상인, 정치인, 장사 이외에도 화상(華工)의 출항이 증대되었다.

전정후 탈출이 계기

이반정 전후 중국은 서양 식민지주의 침입으로 '분할정적'의 파괴, 파산한 농민과 수공업자들이 빈곤으로부리의 탈출하기 위한 출항이 대부반되었다. 그리고 지방의 식민지 자본은 동남아 각지의 식민지 자본

본래로 국적변화에 따라 화교로써 화인경제로 변화된 것으로 거주지의 민족경제에 한 부분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차, 호박, 황금, 황철, 황철 등 화교 자본가의 형성과 화인 기업들이 창립되었다. 이들은 동남아의 사회,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화인들의 지식구조와 소질 역시 그들의 조상

과 달리 교육 수준도 높았고 고급의 교육인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경제로 볼 때 명치, 화교와 화인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인구의 높은 상승률과 과잉인구, 생활수명의 격차로 인한 출국은 가혹한 출국제한정책이 실시된다 해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화교는 이미 화교, 화인이 이미 3~4천만 명을 넘어서는 상태에서 대만, 홍콩, 대만, 각지의 화인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으로 이민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유럽 등지로 이민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로 화교들의 활동영역이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민족의식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화교도 이루어져 경제 발전에서 신축한 발전이 될 것이다.

군건한 민족의식

이는 미국, 캐나다, 호주지역과 대만, 홍콩 등 동남아지역의 화교들은 유적경제와 이민들의 고지적 사회 화교 추수 1/10의 집단기업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현지민과의 융합과 화교 자본이 손조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민족 차별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지문화와 융합되어 발전하고 있다. 화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국경지역의 정황 속에서 화교들은 민족을 하고 있으며 각종 공업, 기업으로 조직화되면서 가족기업에서 집단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민족적 화교는 과학기술, 무역, 화교, 전문 기술인, 예술가 등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과 대만의 통일에서도 일정한 촉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화교, 화인들이 현대적인 경제동향에 맞고 거주지이다. 일정한 구역과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빈번한 접촉으로 새로운 민족의식의 형성과 언어, 문화 등을 계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대부분 현지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화인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제적 급부상

앞으로 미국을 위한 대서양 경제권이 점차로 대평양 연안의 동남아 지역으로 옮겨짐에 따라 화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화인은 고유의 종교, 전통, 문화, 관습 등은 갖지만 화교는 다른 존재로서 새로운 동양의 경제권을 쟁취하고 있다.

화인 경제로 변화

이들 경제 중국인 일본과 아시아 4대국의 동맹, 중국인 연의 개발정책 등으로 이 지역이 세계 경제 중심지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풍부한 자금과 인력, 선진적인 생산 기술, 정당한 경제정책, 풍부한 경영관리의 경험 등이 합쳐지면 미래의 아시아, 태평양 지구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다.

강단시론

황 문 수

(문리대 철학과 교수)



역사는 과거로 되돌아가지도 않고 되돌아가게 만들 수도 없다. 역사는 끊임없이 전진한 뿐이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워버릴 수도 없고, 잊었던 일로 지워버리지 못한다. 역사적 사실은 언제나 지나지 않은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다. 이것은 상식에 속한다.

12.12, 상징적 역사인가?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상상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인간이 역사를 갖고 반성을 하는 존재로 남아 있는 한, 인간은 지나간 역사적 사실을 과거로 역사의 평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인간은 지나간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고 재해석하여 과거의 역사와 단절된 대화를 하면서 역사적 교훈으로 얻고 새로운 역사를 꾸미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도 상식에 속한다.

상식에 속하는 일을 상상처럼 말하는 것은 요즘 12.12사태를 역사로 만들려는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12.12사태의 주역들을 기소하려고 국회법을 위반하고 나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은

립되지 못한다. 80년 서울의 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12.12사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우리가 대담했던 민주화, 시대의 요청이 역사적 사실이기도 했던 민주화를 하루 아침에 무산시킨 사건이라는 것 이외에는 12.12사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정황에 의해 만민에게 해당한다는 사실은 명백해졌다. 범죄를 범으로 다스리는 것은 법치국에서는 당연하고도 또 당연한 일이다. 그 범죄를 어떤 정황에서나 구한 구설로 범으로 다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

국본의 분열을 우려하면, 이 사건이 법정에 서 엄정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이 분열의 이유가 없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법적 심판이 사실상 이미 정당한 소란한 여론을 획기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판은 국본의 분열을 방지해 줄 것이다. 지금 법원 심판은 어떤 다른, 이 사건의 대안으로 법의 침묵을 통해서 풀림이 필요하다. 법의 침묵을 통해서 무고한 역사를 한 마디나 깨끗하게 마

엄정한 처벌이 "국론"

기소불가의 처치를 선택하고 단독처리라는 문명정부의 징표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황은 12.12사태를 수사하고 재판하여 해당한다는 법률적 해석을 내리고 단지 국본의 분열을 우려해서 기소소추를 했다. 그 이전에 정황은 12.12사태를 이미 후대까지 사안이라고 공식적인 전례를 인정하고 있다.

민주당이나 민주당이 정부 12.12사태를 모는 사건은 다르지 않다. 12.12사태가 후대까지 사건이고 재판하여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 여당이 간헐을 달리 하는 점은 역사적 지나간 것에 기소할 것인가, 기소하지 말 것인가 하는 것뿐이다. 다시 말하면 당장 평가를 내릴 것인가, 또는 먼 후일의 역사적 평가를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뿐이다.

서울의 봄을 기억한다면

이 문제는 일정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를 정치사적으로 법정에 올려놓아서 국론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미 지워버릴 수 없는 역사적 사건으로 되었고, 만일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의 성립한 규정해 놓고 그 평가는 후일에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12.12사태에 대한 경멸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역사적 교훈이 되는 일임으로 당장 그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론이 성

부리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또한 어느 정도와 국론의 분열이나 정치권 혼란이 일어났고 개정하더라도, 12.12사태가 법정에 서 심판될 범용으로 인해 되는 중대한 역사적 교훈과 비교한다면, 약간의 국론분열이나 정치적 혼란은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즐겁게 치루어야 할 때가 될 것이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말하는 건에도 있다. 그러나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은 전직대통령을 예외로 하는 원칙은 아니다. 전직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행위가 있다면, 마땅히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직대통령 본연들을 위해서도 공정한 법의 심판은 필요하다. 우리는 12.12사태의 정당성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주장에 기억하고 그들의 논리를 전제해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가.

우리는 대체로 과거에 대해서 관대하다. 그것은 이미 잊었던 일이고 지나간 일이므로 가려지지 말자는 태도를 과거에 대해서 갖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해서 관대했던 것은 미덕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관대했던 것은 자칫하면 역사의 침묵을 더디게 만들 수도 있다. 12.12사태에 대한 평가로 인해 역사적 교훈의 중요성, 이것은 생생하게 역사 속에서 녹아들고 그 교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는 단호해야 하며, 결코 관대해서는 안된다.



지성의 눈을 드넓은 세계로 돌리십시오.
아직도 수 많은 신대륙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언제나 도전에는 지성들에 의하여 바뀌어 왔습니다.
세계의 주도권은 언제나 세계를 무대로 달려 나가기로 돌아왔습니다.
한민족 경제중흥의 중추 역할을 해낼 이땅의 대학인들이여,
미래 한민족 경제대국의 그 가장 핵심은 바로 여러분의 드넓은 가슴, 날카로운 사야, 명석한 두뇌에서 파급되는 명심하십시오.

이제 눈을 세계로 돌려 3천만 세계 대학인과 당당히 경쟁하여
이길 수 있도록 지성과 가치관을 갈고 닦으십시오.
더 큰 무대인 세계로 눈을 돌리면, 한민족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수 많은 신대륙, 새로운 경제영토가 거기 있습니다.

"세계경영 우리기술"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고 있는 대우—
지금 이시간에도 드넓은 지구촌 곳곳에서
김추어진 신대륙을 찾아 우리의 경제영토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우가 있습니다.

